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MBC 강원영동	온라인	권혁열 도의장 "2월까지 연수 개선안 만들겠다"	1
강원도민일보	06면	"강원여성 CEO 화합·단합 세계 무대 진출"	2
江原日報	27면	"강원 경제계 든든한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3
강원도민일보	06면	강원 수출 30억 달러 시대 도약 무역업계 전진	4
江原日報	07면	휴젤 '7천만불 수출탑' 메디아나 '수출대상'	5
江原日報	온라인	2023 강원예술인의 밤, 15일 춘천세종호텔서 개최	5
강원도민일보	20면	도의회 의정활동 우수 위원회·의원 감사패 전달	6
江原日報	02면	도의회 의정활동 우수 위원회·의원에 감사패	6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7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권혁열 도의회 의장	7
강원도민일보	20면	"강원특별자치도 걸맞은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	7
江原日報	01면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 4주 ... 새 인물 나올까	8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9
江原日報	17면	횡성 지역소멸 위기 극복 해답 모색	10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강원자치도지원 특별위 제1차 회의	10
MBC 강원영동		폐교 수순 강원관광대, 강원도립대와 통합론 대두[1/2]	11
일간투데이	14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입법평가특위 개최 15일 제2별관 ...	13
CBS	온라인	강원도의회 "조례 내실 강화"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14
CBS	온라인	강원도의회 '고령친화도시 안착' 모색	15
누리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연구회'연구용역 최종보고...	16
강원도민일보	20면	도의회 다문화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17
에너지경제	온라인	강원도의회 '다문화연구회', 문화 다양성 정책 방향 연구 최...	17
미래일보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다문화연구회'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18
江原日報	03면	'수질 개선·노인 복지' 정책화 고심	19
강원도민일보	온라인	도의회 치수연구회 한강수계기금 성과 분석 등 연구용역 보...	20
江原日報	27면	도의회 교육위 온의유치원 신설 현장 시찰	21
스포츠서울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사찰	21

프레스뉴스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지찰	22
철원신문	온라인	철원향교, 제19회 기로연 개최	23
노컷뉴스	온라인	'마을 안전 수호' 강릉시 포남자율방범대 박상윤 대장 취임	24
江原日報	20면	"폐광 도계에 국제직업고 필요" 목소리 높아져	25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김희철 (왼쪽)·양숙희 도의원	25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정재웅 (왼쪽)도의회사회문화위원장·박관희 도의원	25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김시성(위 왼쪽)·강정호(속초·위 오른쪽)·원미희(비...	25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이지영(비례) 도의원	26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지광천 (평창)도의회 안전건설위 부위원장	26
강원도민일보	17면	[동정] 박대현(화천) 도의원	26
강원도민일보	15면	[동정] 최상기(왼쪽) 인제군수·엄윤순 도의회 농림수산위 ...	26
강원도민일보	18면	[동정] 진종호(양양) 도의원	26
강원도민일보	01면	폐광기금 향소심, 1심 뒤집어 ... 도 708억원 반환 처지	27
강원도민일보	02면	폐광기금 소송 장기화에 폐광지 사업 차질	27
江原日報	02면	강원청소년올림픽 카운트다운 돌입	28
강원도민일보	18면	"속초시 캐릭터 짜니·래요 소개합니다"	29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 부론산단 배후도시 정주여건 개선 윤곽	29
강원도민일보	12면	강릉시 정주인구 22만명 회복 해법찾기 사활	29
강원도민일보	05면	'맥없는 동장군' 포근한 날씨·때아닌 비 탓 겨울축제 비상	30
강원도민일보	05면	야속한 겨울비	3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국제 스케이트장 강원 유치 마땅	3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접경지 주민 심리적 안정화 필요	32
江原日報	25면	[사설] 자영업자 5,200명 감소, 서민 경제부터 살려야 할 ...	33
江原日報	25면	[사설]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검토해볼 만하다	34

2023년 12월 14일 (목)

MBC 강원영동

강원

권혁열 도의장 "2월까지 연수 개선안 만들겠다"

김인성

그동안 지방의회의 비공개 국내연수와 관련해
저희 MBC강원영동의 연속 보도와 관련해,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연수에 대한 조례와 관련해
예산 심의를 마친 뒤 준비를 시작해
내년 2월쯤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다는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만났습니다.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혈세로 국내 연수를 가면서
모든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건
특정 의회 한두 곳의 얘기가 아닙니다.

규정이 없다보니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 됐고,

연말이 다가오면 그해 미처 못 쓴 예산액으로
직원들과 함께 외유성 연수를 다녀옵니다.

강릉시의회와 평창군의회 등의 경우
각각 10월과 11월에 조례 없이
국내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지만

사실 이는 모든 기초의회가 마찬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모든 광역의회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같은 MBC강원영동의 지적에 대해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공감의 의사를 표현하며,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국내 연수 조례를 만들고,
해외연수 조례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투명하게, 공평하게 공개한다는 건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전국 최초로 광역의회 중
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도민들이 (의회 연수에 대해) 정확
하게 알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 예산심의를 마치는 대로
의회에서 협의를 시작해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조례 제정...
"2월쯤 의장단에서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서... 국내는 전국 최초로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할 것이고, 국외는 예산 문제가 빠졌다면 거기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속초와 양양, 동해, 강릉시의회에 이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까지
국내외 연수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시민들의 세금이
의원들과 의회 직원들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교육의 토대로 올바르게 쓰일지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인성입니다.
(영상취재 김창조, 양성주)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경제 06면



2023 강원여성경영인대회가 14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권혁열 도의장, 허영 국회의원, 노용호 국회의원,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장과 여성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강원여성 CEO 화합·단합 세계 무대 진출”

2023 강원여성경영인대회

최소연 대표 중기부장관 표창

강원여성경영인협회(회장 송문숙)는 강원 여성 CEO의 단합, 화합을 강화하고, 공로를 기리고자 ‘2023 강원여성경영인대회’를 개최했다.

14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권혁열 도의장, 육동한 춘천시장, 허영, 노용호 국회의원, 김진호 춘천시의장, 경민현 강원도민일보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매출증대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한 도내 여성 경영인에 대한 포상도 실

시됐다. 최소연 최소연세무회계사사무소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으며 정은숙 봄시내푸드 대표, 차국열 교성대표, 하남숙 복원신탁상임이사, 김명호 평창한우마을영농조합법인 전무, 왕수비 찬디자인 대표, 심현주 곤디 대표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받는 등 총 47명에게 포상을 실시했다.

송문숙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심이 되는 협회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단합, 화합을 강화하고자 회원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협회의 미래 글로벌한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jungwoojin@kado.net

“강원 경제계 든든한 버팀목 역할에 최선”

2023 강원여성경영인대회 ... 회원 28명 기관장 표창

강원여성경영인협회는 14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2023 강원여성경영인대회’를 개최했다.

도내 여성 경영인들의 1년간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자리에는 정광열 경제부지사, 권혁열 도의장,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육동한 춘천시장,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모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지역본부장,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 등 내빈 및 회원 250여명이 참석했다.

최소연 최소연회계사무소 대표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 회원 28명이 기관장 표창을 받았다. 또 공직자 6명에게 강원여

성경영인협회장상이 수여됐다. 시상식을 마친 뒤 회원들은 십시일반 모은 나눔성금 1,177만4,330원을 도에 전달했다.

송문숙 강원여성경영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원여성경영인협회 회원들은 여성CEO 특유의 유연성과 치밀함이 돋보이는 경영방식으로 강원 경제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당당히 도전하는 회원들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기회의 평등이 실현될 수록 직장에서 ‘여성’이라는 용어가 사라져가고 있다”며 “경제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로 여성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강원여성경영인협회(회장: 송문숙)는 14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2023 강원여성경영인대회’를 개최했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열 도의회 의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이끌어가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오고 있는 여성 경영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이 대회가 도내 여성 경영인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허영 국회의원은 “기존의 역사가 남성 중심의 히스토리라면 이제는 여성 중심의 히스토리로 전환하고 있다”며 “히스토리를 뒷받침하는 대표 일꾼으로 뛰겠다”고 강조

했다.

노용호 국회의원은 “산자위에서 일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도 눈을 돌린 적 없다”며 “여성 기업인에 대해서만은 언제나 ‘예스’인 노용호가 되겠다”고 축하했다. 김현아기자 haha@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경제 06면



제60회 무역의날 제7회 강원수출인의 날 행사가 14일 춘천세종호텔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수출 수상기업 및 관련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강원 수출 30억 달러 시대 도약 무역업계 전진

60회 무역의날·7회 강원 수출인의 날

강원특별자치도가 내년 본격적인 특자도 시대를 맞아 수출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인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도와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는 1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제60회 무역의날과 병행해 제7회 강원수출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박철용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장, 우철희 강원수출기업협회장을 비롯해 도내 수출기업인, 수출 유공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전 세계 교역부진, 글로벌 경기위축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수출 노력을 지속해준 강원지역 기업들의 노력과 성과에 대

해 축하하고, 향후 강원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박철용 본부장은 “지속되는 글로벌 무역여건의 악화 속에서도 강원 기업인들의 수출확대를 위한 혼신의 노력이 이어졌다”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2024년도에는 강원 수출 30억 달러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무역업계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선방해 나가고 있는 강원지역 무역 기업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며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시행되면 사회 각 분야에서 기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갈 것이며 수출지원 등 여러가지 프로그램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우진

2023년 12월 15일 (금)

경제 07면

江原日報

휴젤 '7천만불 수출탑' 미디어나 '수출대상'

무역의 날·강원 수출인의 날

휴젤 메디컬 에스테틱 국내 1위
미디어나 80여개국 수출 성과
10개사에 우수상·특별상 수여

춘천 토털 메디컬 에스테틱 전문
기업 휴젤(주)이 올해 수출 7,000만불
탑을 차지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가 주최하는 '제60회
무역의 날·제7회 강원 수출인의 날'
기념식이 1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려 휴젤(주)이 7,000만불 수출탑을,
㈜미디어나가 강원수출대상 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휴젤은 2001년 설립된 메디컬 에
스테틱 전문기업으로 보툴리눔 독신
(보톡스) 제품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받아 국내시장 1위의 자리를 공
고히 하고 있다.

미디어나는 1993년 설립해 환자
감시장치와 심장충격기를 생산하고
있다.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
국과 독일 등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에 기기를 납품하며, 전 세계 80여개
국에 수출하는 등 뛰어난 실적으로



◇제7회 강원 수출인의 날 행사가 14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진태 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박철용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장, 우철희 강원수출기업협의회장을 비롯한 내빈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세희기자

강원수출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비피도, ㈜웰코스, ㈜레메디, 아
시모리코리아(주), 대영씨앤이(주)가 우
수상을 받았다. 또 강원경제인국제
교류협회 회원사인 ㈜세준에프앤비
를 비롯해 유성씨앤에프(주), ㈜위온,
제네독스(주), 윈스파리츠(주)농업회사
법인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기념식
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장, 박철용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장을 비
롯해 우철희 강원수출기업협의회장,
모태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강원

지역본부장, 권오광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장, 홍상영 코트라 강원
지원단장 등 기관·단체장과 도내 수
출기업, 수출유공자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 원자재 가격 상
승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도내 수출
은 10월 기준 22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선방하고 있다”면서 “새해에는
강원 수출기업들이 더 힘차게, 더 마
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
가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권혁열 도의장은 “기업인들이 보
다 더 나은 여건에서 수출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용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
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
기로 2024년도에는 강원 수출 30억
달러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무역
업계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
혔다. 이규호기자

※수출의탑·유공포상자 명단은 강원
일보 홈페이지(www.kwnews.co.kr)
참고.

江原日報

2023년 12월 14일 (목)

종합

2023 강원예술인의 밤, 15일 춘천세종호텔서 개최

강원에총이 마련하는 '강원예술인의 밤' 행사가 15일 오후 5시 춘천세종호텔 사파이어홀에서 열린다. 강원특별자치도내 문화예술인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마련되는 이날 행사는 이재한 강원예총회장을 비롯해 김진태도지사, 권혁열 도의장, 허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호 강원예술계 출간 기념식과 제12회 강원예술상 시상식 등으로 진행된다. 강원예술상 시상식에서는 춘천조각심포지엄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해 김수학(춘천미술협회 회원)씨에게 대상이 수여된다. 또 김형목(홍천음악협회 회원)씨에게 공로상이, 이도영(속초음협 회원).이종섭(춘천음악협회 부지부장)씨에게 청년예술인상이 각각 전달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인물 20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정활동 우수 위원회·의원 감사패 수여식을 열었다.

사진제공=도의회

도의회 의정활동 우수 위원회·의원 감사패 전달

김용래·임미선·이지영 의원 등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의정활동 우수 위원회와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4일 의정활동 우수 의원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의장 명의 감사패를 전달했다.

우수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로 소속 위원 총 14명이 감사패를 받았다. 운영위 심영곤 위원장, 박관희 부위원장, 박윤미, 엄윤순, 이무철, 지광천, 최종수, 하석균 의원 등 8명이다. 또, 교육위는 박길선 위원장, 이영욱 부위원장, 김기하, 김희철, 이승진, 조성운 의원 등 6명이다.

조례 발의 건수에 따른 의정활동 우

수의원 7명도 감사패를 받았다. 김용래, 임미선, 이지영, 심오섭, 최규만, 엄기호, 양숙희 의원 등이다.

이철화

2023년 12월 15일 (금)

江原日報

종합 02면

도의회 의정활동 우수 위원회·의원에게 감사패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정활동 우수 위원회·의원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의회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과 우수 의원 등 21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감사패는 심영곤 운영위원장, 박관희 운영부위원장을 비롯해 운영위원회 박윤미·엄윤순·이무철·지광천·최종수·하석균 의원에게 전달됐다. 또 박길선 교육위원장,

이영욱 교육부위원장, 교육위원회 김기하·김희철·이승진·조성운 의원도 받았다. 의정활동 우수 의원에는 김용래·임미선·이지영·심오섭·최규만·엄기호·양숙희 의원이 선정됐다.

이들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의견을 적극 대변하고, 도정에 대한 견제와 방향 제시를 통해 도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江原日報

2023년 12월 14일 (목)

종합

[동정]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의회 의장

권혁열 도의장은 17일 오후 6시30분 강릉 주문진관광유람선에서 열리는 주문진 JC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인물동정 12면



권혁열 도
의회 의장
은 17일 오후 6시 30
분 주문진

관광유람선에서 열리는 주문진 JC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인물 20면

“강원특별자치도 걸맞은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

도주민자치회 대표자 워크숍

방향 제시·실질적 발전 도모

표창 전달·본지 김중석 회장 특강

2023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군 및 읍·면·동 주민자치 대표자 워크숍이 14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에서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과 시·군 주민자치 대표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올해 추진된 주민자치사업을 되돌아보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 주민자치의 실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워크숍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에 앞장선 12명과 주민자치박람회를 위해 노력한 3명이 강원도지사 표창을 받



2023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회장 이정운) 워크숍이 14일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도 주민자치회 대표자 및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호

았다.

또한 12명에게는 도의회 의장 표창이, 9명에게는 주민자치회장 표창과 감사패,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정운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가 더욱 내실 있게 발전

하고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화합하고 단결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주민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강원특별

자치도가 올해 산림엑스포 등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자치회 여러분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은 “주민자치회 덕분에 각 지역이 잘 운영되고 있다”며 “주민자치와 관련된 예산은 적극 반영해 여러분이 좋은 환경에서 봉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회장이 ‘지방시대·특별자치시대 주민자치회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김 회장은 “우리는 주민자치를 통해 내 권리만 주장하는 것이 아닌 우리 지역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며 “주민자치회가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수상자명단 kado.net

江原日報

2023년 12월 15일 (금)

종합 01면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 4주... 새 인물 나올까

〈내달 11일〉

총선 판세 영향 촉각

내년 4·10 총선의 공직자 사퇴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얼굴’ 등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게감 있는 인사들의 출마가 이어질 경우 공천 구도와 본선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공직자는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남은 시간은 한 달가량이다. 여야의 인재 영입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 출마를 고심 중인 인사들도 있어 이 기간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가장 큰 관심은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다. 원주 출신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의 ‘차출설’이 꾸준히 흘러나온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이달 말 또는 내

원주 출신 ‘김완섭·장미란’ 차관 고위직들 차출설 꾸준히 거론 ‘김기홍·최재민’ 도의원도 고심

년 초 김 차관의 행보가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차관은 지난 13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청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져 눈길을 끌기도 했다. 출마할 경우 지역구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직이 비어 있는 원주율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지역구의 현역은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다.

역시 원주 출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원주와 경기 오산 출마설에 휩싸여 있다.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과 최재민 도의원이 거론된다. 현역 도의원 역시 출마하려면 공직자와 동일하게 내년 1월11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두 의원 역시 출마할 경우 원주율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

김기홍 부의장은 “지역과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더 고민 중”이라고 했다. 최재민 도의원도 “사퇴 기한까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호범 강원특별자치도청 노조위원장도 사표를 제출하고 춘천-철원-화천-양구를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밝혀 경쟁구도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도내 정가 관계자는 “공직자 사퇴 시한이 지나면 실제 총선 출마자들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서울 종로와 용산, 세종 등의 출마설이 돌고 있는 도 출신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도 이르면 이달 말 거취를 표명할 예정이다. 서울=원선영·이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년 12월 14일 (목)

종합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강릉) 도의장은 17일 오후 6시30분 강릉 주문진 관광유람선에서 열리는 주문진 JC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

김기홍(원주) 도의회 부의장, 이무철(춘천) 도의회 경제산업부위원장, 박윤미(원주).박찬홍(춘천).진종호(양양) 도의원은 15일 오전 8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2023년 제14회 강원아카데미에 참석.

박기영(춘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엄윤순(인제) 도의회 농림수산부위원장, 김희철(춘천).박대현(화천) 도의원은 15일 오후 2시 소양강댐 시민의 숲 주차장에서 열리는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에 참석.

정재웅(춘천)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박관희(춘천) 도의원은 15일 오후 5시 춘천 세종호텔 사파이어 홀에서 열리는 제12회 강원 예술상 시상식에 참석.

지광천(평창) 도의회 안전건설부위원장, 이지영(비례).최규만(횡성) 도의원은 15일 오후 1시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고령친화도시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

김시성(속초).강정호(속초).원미희(비례) 도의원은 15일 오후 5시30분 속초 마레몬스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리는 2023년 보육교직원을 위한 축제의 밤에 참석.

양숙희(춘천) 도의원은 15일 오후 4시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리는 제5회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시상식에 참석.

홍성기(홍천) 의원은 15일 오후 6시30분 홍천 K컨벤션에서 열리는 2024년 홍천청년회의소 회장단.감사 이.취임식 및 전역식에 참석.

유순옥(비례) 도의원은 16일 오전 10시 동해시 가족센터에서 열리는 2023 동해시가족센터 성과보고회 홈커밍데이에 참석.

이승진(비례) 도의원은 15일 오후 6시 춘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리는 2023년 춘천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송년회에 참석.

江原日報

2023년 12월 15일 (금)

지역 17면

횡성 지역소멸 위기 극복 해답 모색

【횡성】횡성지역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강원일보사와 횡성군, 횡성군의회의는 15일 오후 3시 횡성문화원에서 김명기 군수, 최병수 강원일보사 전무이사, 김영숙 군의장과 군의원,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김경녀 횡성교육장, 김숙자 횡성소방서장 등 지역 기관·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횡성군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속가능

군 정책 포럼 오늘 횡성문화원서 개최 지속가능 성장 위한 인구대책 등 점검

한 지역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인구 대책을 점검하고, 현실성 있는 전략을 모색한다.

포럼은 제1주제 ‘혁신도시 시즌2-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에 대해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전영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 부연구위원, 정운현 군의원, 임광식

횡성군청 투자유치과장의 토론이 진행된다.

제2주제에서는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증진’에 대한 정영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와 김원동 강원대 교수, 최정민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 이재성 횡성문화관광재단 대표의 토론이 이뤄진다.

이어 방청객 질의 응답으로 포럼 패널들이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포럼 좌장은 권혁순 강원일보 논설주간이 맡는다.

김명기 군수는 “65세 이상 초고령 비율이 33%에 육박하는 횡성은 전국 최초로 건(健)중년을 선포하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제시된 전문가들의 핵심 발표를 군정 전반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학렬기자 hyoo@

江原日報

2023년 12월 15일 (금)

종합 03면



도의회 강원자치도지원 특별위 제1차 회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자치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최승순)는 14일 의회 운영위원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도 특별자치추진단의 강원자치도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 및 질의를 실시했다. 박승선거자

MBC 강원영동

2023년 12월 14일 (목)

강원

폐교 수순 강원관광대, 강원도립대와 통합론 대두

김형호

태백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강원관광대가
사실상 폐교 수순을 밟으면서,
대학 활용방안을 놓고 여러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립대와의 통합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걱정이 큼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5년 개교해
2000년 관광계열 특성화 대학으로 변신한
강원관광대학교.

지난 2021년 5개 학과를 없애고
간호학과 1개만 남기며
재학생 4백여 명만 유지했는데,

지난 9월
내년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사실상 폐교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4학년 재학생이 졸업하면,
내년에는 나머지 학생들을 다른 대학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폐교에 따라
지역 의료 인력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태백지역 사회에서는
전략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학과를 유지해
회생시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김주영 / 태백시현안대책위원장
"강원관광대 폐교가 결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남은 보름 안에 정상화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 장성광업소
폐광과 맞물려서 시민들이 극도로 불안해하지 않겠느냐...."

이달 초 강원도의회에서는
강원도립대와 강원관광대의 통합 가능성을
확인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 중인 강원도립대가
태백 관광대학교 간호학과를 인수해
캠퍼스 체계로 운영하는 게
어떨냐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사립대와 공립대의 통합이 이례적이라 관련규정 적용이 쉽지 않고,

강원관광대의 간호학과 인증이
내년 6월에 끝나 재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강원도와 태백시 관계자들은 대학 통합 후에도 운영 자금이 연간 20억 원 가량 필요해
재정 부담이 크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학사 일정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통합 카드가 추진되지 못하면
강원관광대 사태는 앞날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문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태백시)
"도립대의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데, 관광대와 통합한다면 간호학과를 통해 지역공공기관의 간호인력
수급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이미 폐교한 도내 대학들의 사례에서 보듯,
대학이 문을 닫기 전에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강원관광대도 장기 골치거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일간투데이

2023년 12월 15일 (금)

지역 14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15일 제2별관 중회의실

노덕용 기자 nod2015@dtoday.co.kr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5일 오후 1시 30분부터 도청 제2별관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위원장 임미선)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1년 및 2022년에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 및 '입법평가 추진방식 개선방향'에 관한 보고를 받고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올해 실시한 2023년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20년에 제정 또는 전부개정 돼 시행 중인 조례 52건이며 의회 자체평가 결과, 심화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20건, 일반정비 필요 조례는 30건, 폐지 필요 조례는 1건, 현행 유지 조례는 1건이며, 사업실적 부진 또는 사업 집행상 개선이 필요한 이행독려 사항은 24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는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와도 교육청에 권고하고, 도의회 홈페이지 공

표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입법평가 이후 조례의 정비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반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21년 최초로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해 2022년까지 2년간 총484건의 조례를 입법평가 했으며, 이중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총417건으로 현재까지 정비가 완료된 조례는 총308건(74%)이다.

정비필요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위임조례에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단순 확인 재기재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이며 기준에 따라 심화정비, 일반정비, 폐지필요로 분류돼 사후관리 중에 있다.

이 밖에도, 사업실적 부진, 시행규칙 제정 등 조례 개정과 별도로 추진돼야 할 사항은 총46건으로 '이행독려'로 평가 분류됐으며 현재 조례 소관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임미선 위원장은 "강원형 조례 입법평가는 외부기관 위탁이 아닌 의회 자체평가 시스템으로 도내의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평가된 것으로 도민 생활에 보다 밀접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원형 입법평가시스템을 견고히 구축해 입법평가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BS

2023년 12월 14일 (목)

강원

강원도의회 "조례 내실 강화"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강원CBS 박정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의 장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권혁열 의장)는 오는 15일 도청 제2별관 중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를 연다.

회의에서는 '2021년 및 2022년에 실시한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현황' 및 '입법평가 추진방식 개선방향'에 관한 보고를 받고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한다.

올해 실시한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20년에 제정 또는 전부개정돼 시행 중인 조례 52건이며 의회 자체평가 결과 심화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20건, 일반정비 필요 조례는 30건, 폐지 필요 조례는 1건, 현행 유지 조례는 1건이며 사업실적 부진 또는 사업 집행상 개선이 필요한 이행독려 사항은 24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례들은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의결을 거쳐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교육청에 권고하고 도의회 홈페이지 공표 및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한 입법평가 이후 조례 정비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입법평가는 시행된 지 2년 이상 경과된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의 적법성, 실효성, 지속성 등을 평가해 적절한 정비안을 마련해 조례의 입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유지하는 제도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뉴스쑈, 신아일보 등 39개 언론사 보도

CBS

2023년 12월 14일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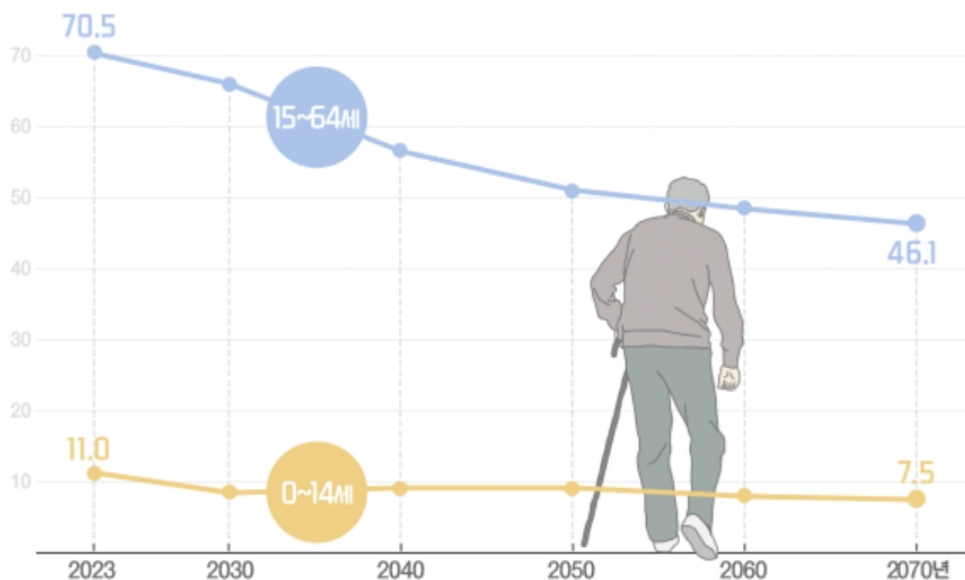
강원

강원도의회 '고령친화도시 안착' 모색

강원CBS 박정민 기자
핵심요약

15일 고령친화도시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65세 이상 인구 비중 추이



자료 : 통계청

그래픽=김성기 디자이너 NOCUTNEWS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령친화도시 연구회(회장 박윤미 의원)는 1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고령사회의 노인주거복지과제와 해결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연다.

연구회는 앞서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주거복지환경을 만들기 위한 해결방안을 연구해 줄 것을 용역기관인 (주)꾸림 컨설팅에게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로 강원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와 가파른 고령화 시대에 맞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정책 및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용역기관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12월 연구용역결과물을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CBS 박정민 기자

2023년 12월 14일 (목)

전국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연구회'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고령친화도시 연구회”는 12월 15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고령사회의 노인주거복지과제와 해결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한다.

이번 최종보고회에서 연구회 회장 박윤미 의원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주거복지환경을 만들기 위한 해결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연구회 활동 초기에 용역수행기관에 주문했었고, 그동안의 진행 상태 및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연구회 회원들도 인구감소로 강원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 소멸 위기와 가파른 고령화 시대에 맞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대책을 강구하고 이를 정책 및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연구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의견을 모았다.

용역기관은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하고 12월 준공시점에 맞춰 연구용역 결과물을 도출하여 제출할 계획이다.

누리일보, 명성일보 등 32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인물 20면



도의회 다문화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다문화연구회(회장 박길선)가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다문화사회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사진제공=도의회

2023년 12월 14일 (목)

에너지경제

종합

강원도의회 '다문화연구회', 문화 다양성 정책 방향 연구 최종 보고회 개최

박에스더 ess003@ekn.kr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 '다문화연구회'는 14일 박길선 회장(오른쪽 네 번째)을 비롯한 연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사회의 강원특별자치도의 다양성 정책 방향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 '다문화연구회'는 '다문화사회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 다양성 정책 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다문화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을 파악하고 다문화사회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적 포용 정책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박길선(원주 1) 연구회 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이주민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포용 정책 방안을 발굴해 보다 다문화 친화적 사회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ss003@ekn.kr



2023년 12월 14일 (목)

지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다문화연구회'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김정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다문화연구회'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명성일보=김정현 기자]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연구 모임인 '다문화연구회'는 ‘다문화사회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12월 14일에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문화 다양성을 파악하고 다문화사회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적 포용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연구회 회장인 박길선 의원(원주 1)은 “연구용역을 통하여 이주민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다문화사회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적 포용 정책 방안을 발굴하여 보다 다문화 친화적 사회가 조성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명성일보, 신한뉴스 등 34개 언론사 보도

2023년 12월 15일 (금)

江原日報

종합 03면

‘수질 개선·노인 복지’ 정책화 고심

자치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최종보고회 갖고 머리 맞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들이 잇따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결과물의 정책화에 고심하고 있다.

도의회 치수연구회는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 기초 현황 및 오염 발생 현황, 수질 개선에 관한 관리비용 연구용역’과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한강수계기금 사업화 방안으로는 지역 주민 체감형 특별 지원사업 발굴, 자연침해조정제도 적용, 강원자치도 한강수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윤길로 치수연구회장은 “한강수계 관리기금 지원사업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며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

쳐 효율적인 사업화 방안을 구상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의회 다문화연구회도 이날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다문화사회의 강원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다문화사회 속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적 포용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박길선 다문화연구회장은 “이주민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를 심화해 문화적 포용 정책 방안을 발굴하고 다문화 친화적 사회가 조성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의회 강원미래정책연구회도 기획행정위 회의실에서 ‘강원자치도 전통시장 활성화방안’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고령친화도시 연구회는 15일 ‘고령사회의 노인주거복지 과제와 해결방안 연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한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4일 (목)

정치

도의회 치수연구회 한강수계기금 성과 분석 등
연구용역 보고회

이설화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치수연구회'(회장 윤길로)가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 기초현황 및 오염발생 현황, 수질개선에 관한 관리비용 연구용역'(변성준)과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한영한) 2개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치수연구회'(회장 윤길로)가 14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 기초현황 및 오염발생 현황, 수질개선에 관한 관리비용 연구용역'(변성준)과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의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한영한) 2개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lofi@kado.net

엔사이드, 누리일보 등 38개 언론사 보도

江原日報

2023년 12월 15일 (금)

인물 27면



도의회 교육위 온의유치원 신설 현장 시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는 14일 춘천 온의유치원 신설 현장과 신동초교 신설대체이전 현장을 현지시찰했다.

스포츠서울

2023년 12월 14일 (목)

사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시찰

12. 14.(목) 춘천 온의유치원 신설 및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현장 현지시찰



사진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길선, 국민의힘(원주1)]는 춘천교육지원청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 사항을 현지 확인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2월 14일(목)에 춘천 온의유치원 신설 및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현장을 현지시찰했다.

acdck4021@sportsseoul.com

프레스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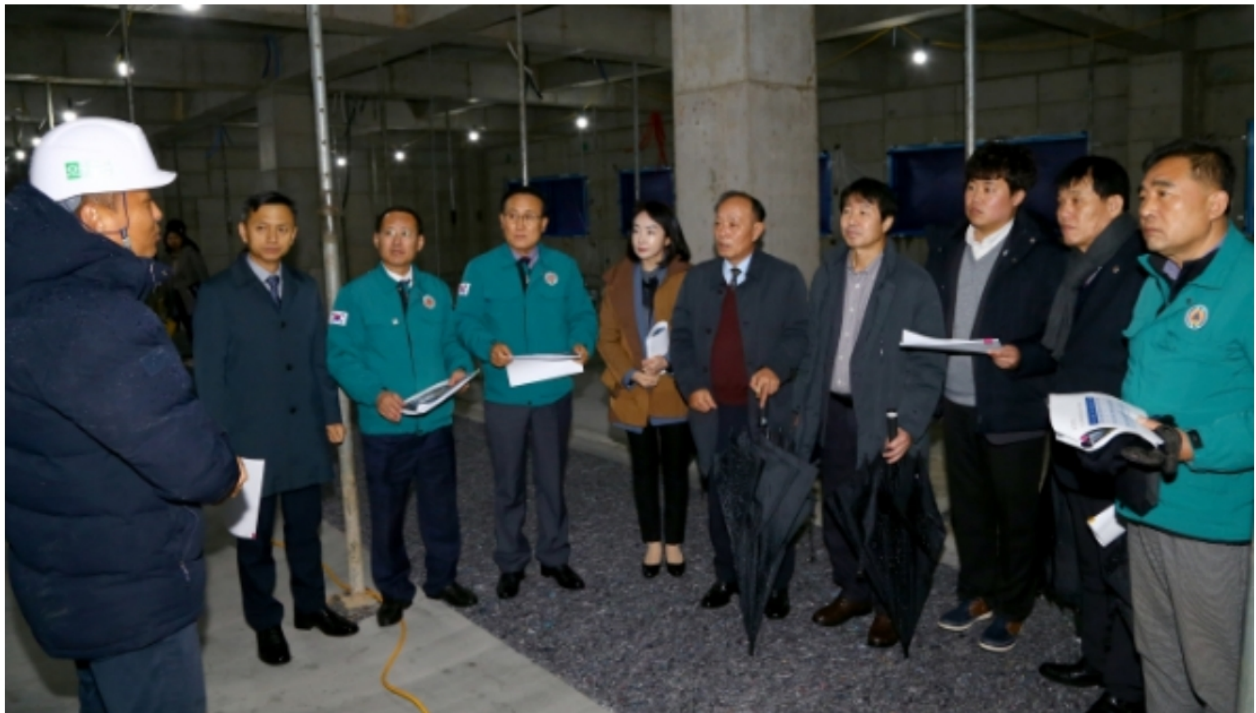
2023년 12월 14일 (목)

정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시찰

프레스뉴스

12월 14일 춘천 온의유치원 신설 및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현장 현지시찰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현지시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춘천교육지원청의 주요 현안사업추진 사항을 현지 확인하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12월 14일에 춘천 온의유치원 신설 및 신동초등학교 신설대체이전 현장을 현지시찰 했다.

뉴스쑈, 누리일보 등 31개 언론사 보도

2023년 12월 14일 (목)

철원신문

강원

철원향교, 제19회 기로연 개최

—옛 선조들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전통문화 행사 —문화 계승, 도덕심을 함양하는 데 노력할 것



철원향교(전교 안창모)는 14일 녹원뷔페(동송읍 소재)에서 경로효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제19회 기로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이현중 군수를 비롯해, 박기준 군의장, 한기호 국회의원, 엄기호 도의원, 임길호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장, 김현모 철원문화원장, 최계숙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변지량 도민복지특별자문관, 고기영 철원축구협회장 및 각 기관단체장, 유림, 주민 170여 명이 참석했다.

김태룡 청년유도회 사무국장의 사회로 제1부 기념식이 시작됐다. 국민의례, 문묘 배례, 이명규 청년유도 부회장의 윤리선언문 낭독, 내빈소개, 향교 유공회원 표창, 개회사, 축사가 이어졌다.

개회사에서 안창모 전교는“기로연은 옛 선조들의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전통문화 행사로써 중신들을 초대해 잔치를 벌여온데서 유래된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철원향교는 이 전통문화를 계승함은 물론 도덕심을 함양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이현중 군수님, 박기준 군의장님을 비롯해 각 기관단체, 원로, 유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갑진년 청룡의 해는 더욱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통해 이현중 군수는“경로효친사상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며 우리가 본받고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충효 예절교육 활성화되길 바라며, 주관한 안창모 전교님 비롯 유림분들에게 감사하다”며“2024년 용의 기운 받아 여기 계신 모든분들에게 행운과 건강이 깃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훈 총무수석 장의의 사회로 2부 기로연 시연 행사를 시작했다. 초청 원로 소개, 최창배 청년유도회장과 박은숙 여성유도회장의 인사말씀, 삼경례, 이주섭 교화수석장자의 헌시 낭송, 신혜정 여성유도회원 고전원문 낭독, 유정희 여성유도회원의 민요창, 기념품 증정, 폐회식 순으로 진행했다.



마지막 3부 연회 및 식사에서는 가수 서경자, 국악인 오수빈, 한국국악교육원 서행복 부원장, 가수 윤진우, 민요창 가수 유지아의 초청공연과 유림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철원향교·유도회철원지부 주최, 청년유도회·여성유도회 주관, 철원군·철원군의회가 후원했다.

참고로 기로연은 조선시대 예관(禮曹)의 주관으로 기로소에 입소한 고령의 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매년 봄 상사(上巳日, 음력 3월 3일)와 가을 중양(重陽)에 배운 잔치로 현재는 향교에서 전통문화 보전·전승을 위해 경로잔치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다. 철원향교에서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경로 효친 사상의 의미를 되새기며 매년 기로연을 개최하고 있다.

관리자 (korea78123@hanmail.net)

노컷뉴스

2023년 12월 14일 (목)

사회

'마을 안전 수호' 강릉시 포남자율방범대 박상운 대장 취임



강릉시 포남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 강릉시 제공

강릉시 포남자율방범대는 지난 13일 강릉 세인트컨벤션웨딩에서 최승순.김용래 도의원과 이정순 동장, 자율방범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4.15대 포남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새로 취임한 박상운 대장은 "앞으로 포남 1.2동의 안전 수호는 물론 100여 명 대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치안 봉사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자율방범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애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jebo@cbs.co.kr카카오톡 :

@노컷뉴스사이트 :

<https://url.kr/b71afn>

江原日報

2023년 12월 15일 (금)

지역 20면

“폐광 도계에 국제직업고 필요” 목소리 높아져

조성운 도의원 도계전산정보고 전환 필요성 제기
해외유학생 유치 ‘인재 양성·지역소멸 방지’ 대안

【삼척】속보=폐광지역인 삼척 도계전산정보고를 국제직업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성운 도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도

계읍 석공 도계광업소가 2025년 폐광되면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폐광에 따른 인구유출과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의 특성화고를 전문 직업고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본보 지난 13일자 3면 보도)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 전교생이 27명에 불과한 도계전산정보고의 강원국제직업고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이 2025년 3월까지 기존 특성화고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6년 3월 해외 유학생 특화

학교로 전환하는 국제직업고 모델을 강원자치도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것.

지역에서도 도계전산정보고의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올 9월 도계에서는 학교 통폐합을 주도하는 미래교육환경 개선위원회가 출범, 학생 수 감소대책,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맞는

교육현장 배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정준화 미래교육환경 개선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폐광지역 도시재생사업, 면세점 설치 등 지역 변화에 맞는 인재양성과 폐광 대비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특성화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민진기자 hmj@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인물동정 09면



김희철(왼쪽)·양숙희
도의원은 15일 오후 2시 소양강댐 시민의 숲 주차장에서 열리는 소양강댐준공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인물동정 18면



김시성(위 왼쪽)·강정호(속 초·위 오른쪽)·원미희(비례) 도의원은 15일 오후 5시 30분 속초마레몬스호텔대연회에서 열리는 2023년 보육교직원을 위한 축제의 밤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인물동정 09면



정재웅(왼쪽)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박관희 도의원은 15일 오후 5시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리는 강원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인물동정 18면
회에 참석한다.이지영(비
례) 도의
원은 15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리
는 고령친화도시연구
회 연구용역 최종보고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인물동정 15면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최상기(왼쪽) 인제군
수·염윤순 도의회 농
림수산위 부위원장은
15일 오후 2시 소양댐
시민의숲에서 열리는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인물동정 16면

지광천(평
창) 도의
회 안전건
설위 부위
원장은 15일 오후 1시 30분 도의
회에서 열리는 고령친
화도시연구회 연구용
역 보고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인물동정 17면

박대현(화
천) 도의
원은 15일
오후 2시
춘천 소양강댐 시민의숲주차장
에서 열리는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행사
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인물동정 18면

진종호(양
양) 도의
원은 15일
오후 5시
30분 양양썰비치에서 열리는 제
24회 사회복지의 날 기
념 2023년 양양군 사
회복지인의 밤 개최식
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종합 01면

폐광기금 부과분
취소소송, 일지

2020. 5. 10

강원도, 강원랜드에 폐광기금 과소납부분
(2014년~2019년) 2250억원 부과 처분

2020. 5. 15

강원랜드, 강원도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

2020. 5. 27

춘천지법, 일부 인용 결정
2014~2016년분 1179억원

2020. 9

강원랜드, 강원도에
1071억원 납부

2021. 2. 19

1심 강원랜드 승소
"강원도 처분 부당"

2023. 12. 14

2심 강원랜드 일부 승소

폐광기금 항소심, 1심 뒤집어...도 708억원 반환 처지

2014~2019년 6년치 징수 중
2019년 부과 처분은 타당 해석
도, 판결문 검토 전락수립 상고

속보=2250억원에 달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 추가 부과분을 둘러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랜드 간 행정소송항소심(본지 10월31일자 4면)에서 1심판단이 뒤집히며 새 국면을 맞았다.

항소심재판부는 강원랜드의 선행배손을 들어준 1심판단과는 달리 강원도

가 주장한 폐광기금 산정방식이 타당하다고 판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패를 가를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항소심재판부는 도가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3년치 폐광기금과 과소징수분 중 2019년분을 제외하고 총 708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4일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낸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14~2019년 6년치 폐광기금을 추가 부과한 강원도의 처분 중 2014~2018년 5년치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인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1심과 달리 판단했다. 해당 쟁점에 대해 1심은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분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폐광기금을 당해연도 매출총이익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기업 회계관점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며 "(폐광기금을) 당해연도 매출총이익에서 차감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1심(전부 승소)과 달리 항소심에서선 강원랜드가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랜드로부터 징수한 2017~2019년 3년치 폐광기금과 과소징수분 1070억원 중 2019년분(362억원)을 제외한 2017년분(396억원)과 2018년분(312억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강원랜드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뒤 폐광기금을 납부한 기존 방식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강원도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 이익을 위해 설립된 만큼 폐광기금을 민간기업의 자대처럼 '비용'으로 처리한 뒤 이를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서 빼고, 폐광기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잘못

됐다는 논리다. 특히, 도는 20년 간 이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부과된 폐광기금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을 통해 폐광기금 소송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대해 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해석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나, 신뢰 보호의 원칙을 원용해 부과처분의 일부를 유지(일부를 취소)했다"며 "항소심 판결문 검토 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덕형

▶관련기사 2면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종합 02면

폐광기금 소송 장기화에 폐광지 사업 차질

기금 운영비 처리 놓고 법적 다툼
도 반환 땐 개발사업 축소 불가피

폐광기금 소송은 '산정방식'을 두고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수년간 줄다리기를 해온 싸움이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도를 비롯한 폐광지역에 폐광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폐광기금을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에서 강원랜드 운영비용으로 처리하는지의 여부를 두고 해석의 다툼이 생기면서 폐광기금 소송까지 벌어지게 됐다.

강원랜드는 폐광기금을 재무제표상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부과기관인 강원도는 폐광기금 산정 목적으로 법인세차감 전 순이익을 계산할 때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공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도는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목적에 맞게 폐광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광기금 소송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문 해석을 달리하면서 벌어졌다. 지난 2021년 2월 특별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폐광기금 부과 기준이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이었다. 이에 2018년까지는 강원도와 강원랜드가 이견 없이 폐광기금을 부과하고, 납부했었으나 2019년 강원도가 폐광기금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행정 처분을 준비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추가적인 혼란을 막기 위해 폐특별법을 개정했다. 2021년 2월 법률 제정(2025년 12월)이다. 개정된 폐특별법을 개정, 폐광기금 부과 기준을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2250억원에 달하는 폐광기금 추가 부과분을 둘러싼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차질을 빚게 됐다. 도가 납부할 반환금 규모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으로도 708억원 규모다. 이는 그대로

강원도에 재정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데다 폐광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연쇄적인 차질로 이어지게 된다. 과소납부분 반환이 이뤄지게 되면 폐광기금 배분액 역시 감소, 폐광지역개발사업 축소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철화

江原日報

2023년 12월 15일 (금)

종합 02면

강원청소년올림픽 카운트다운 돌입

조직위 사전 미디어 브리핑

내달 15일 선수촌 개촌
관람객 25만명 목표 수립
20억 예산 추가확보 과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선수촌 개촌 일정이 확정되고 일부 경기 티켓이 매진되는 등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1월19일 개막하는 청소년올림픽의 주요 일정 등을 공개했다.

우선 대회 개막 나흘 전인 내년 1월15일 강릉선수촌(강릉원주대 기숙사)이 공식 개촌한다. 강릉선수촌에서는 선수 1,700여명, 임원 900여명 등 2,600여명이 생활한다. 개막 하루 전에는 정선선수촌(하이원리조트 마운틴콘도)이 문을 연다. 선수 200명과 임원 150명 등이 묵을 예정이다.

경기 입장권은 개회식을 제외하면 모두 무료지만 반드시 예매를 통한 티켓이 있어야 입장 가능하다. 올 11월 말 기준 8만매 이상이 판매됐으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사전 미디어 브리핑이 14일 강원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려 김재환 조직위 대변인이 대회 준비 상황과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피겨스케이팅 등 일부 인기 종목은 이미 매진됐다.

조직위는 청소년올림픽에 25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림픽 주역인 청소년 8만명, 관광객 10만명, 주민 4만명, 전국 기관·단체 3만명 등이다. 겨울스포츠와 강원도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유치전략을 수립 중이다.

다만 대회 개막까지 추가 자원 확보

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대회 예산은 총 852억원이며 20억원 가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조직위의 판단이다. 현재 조직위는 초긴축 재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회 개막 후 여러 돌발적인 상황 발생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조직위 관계자는 “10억~20억원 정도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새로 선임된 대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마케팅과 협찬 등을 유치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1월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1일까지 평창, 강릉, 정선, 횡성 일원에서 ‘GROW TOGETHER, SHINE FOREVER(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를 슬로건으로 열린다. 80개국에서 선수 1,900명을 비롯해 총 1만5,000여명이 참가한다. 최기영기자

2023년 12월 15일 (금)

지역 18면

강원도민일보

“속초시 캐릭터 짜니·래요 소개합니다”

새로운 대표 상징물 본격 사용
시민 선호도 조사 등 의견 수렴
심볼마크·속초바다체 등 개발



속초시가 새로운 상징물을 본격 사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15일 새로운 상징물을 규정한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공포·시행한다.

시는 지난 2월부터 9개월 동안 사전 시민 인식 조사 및 선호도조사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대

속초시 심볼마크(왼쪽)와 캐릭터 짜니와 래요.

표상징물인 CI, 캐릭터, 전용서체를 개발해 지난 10월 7일 속초시민의 날 행사 시 선포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대표상징물들을 소개했다.

새로운 심볼마크(CI)는 속초의 한글을 그대로 사용한 디자인으로 간결

한 곡선을 부각해 속초의 이미지를 ‘미래로 이어지는 길’로 표현했다. 특히 국영문이 혼합된 디자인으로 국내외 세계인이 함께하는 도시상을 표현했으며 녹색과 남색 두 가지 색상으로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이미지

를 구현했다.

또한 속초지역의 독특한 어감으로 명명된 새로운 캐릭터 ‘짜니’와 ‘래요’는 설악산의 정기와 동해의 기상을 머금고 자라난 산과 바다를 넘나드는 상상의 동물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전용서체 ‘속초바다체’는 고딕, 명조, 손글씨체 3종으로 파도치는 속초의 바다를 연상하게 하며 활기와 경쾌한 움직임이 표현되었다. 해당 서체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시 누리집(www.sokcho.go.kr)과 공공누리 사이트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박주석

강원도민일보

원주 부론산단 배후도시 정주여건 개선 윤곽

2023년 12월 15일 (금)

지역 10면

문막읍 등 정주여건 조성 회의
문화센터 건립·도로 확장 등
경쟁력 강화 시책 37건 제시

최근 본격 추진된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정주여건 개선의 윤곽이 나왔다.

원주시는 14일 문막읍, 부론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원강수 시장의 주재로 ‘부론산업단지 정주여건 조성

위한 협업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부론산단 배후도시인 문막읍·부론면 정주여건 개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공개와 체계적 실행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제시된 시책은 총 37건이다. 유치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시책은 물론 주민 생활 여건 개선 사업까지 다양하게 담았다.

두 곳 공통 추진 시책은 기업유치 인센티브 발굴,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 중소기업 지원사업, 산업단

지 상생통근버스 임차지원, 부론산단 내 생활체육시설 확충, 도로 확장, 산단 어린이집 운영 등 교육여건 개선, 국제학교 유치, 상수관로 정비 등이다.

도로 확장 구간은 국지도 49호선 부론면 노림~법천, 국도 42호선 문막~흥업 및 단계동 청골사거리~흥업면 광터교차로 등 3곳이다.

여기에 문막읍에는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문막지구 도시개발, 생활문화센터 건립, 반계리 은행나무 광장

조성, 문막교재가설, 상설행사장 설치, 부론면에는 법천사지 정비,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하수관로 정비 등이 계획됐다. 주민들도 문막지구 도시개발 일부 구역 우선 추진, 문막 섬강 강변도로 개설 등을 추가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원강수 시장은 “부론산단 정주여건 마련에 더욱 주력해 인구유입, 기업 성장에 기여하며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khm29@kado.net

강원도민일보

강릉시 정주인구 22만명 회복 해법찾기 사활

2023년 12월 15일 (금)

지역 12면

3년 내 1만명 유입 계획 수립
출산·임대주택 지원책 집중
“일자리·정주여건 개선 노력”

강릉시가 3년 뒤인 오는 2026년까지 정주인구를 22만명까지 회복하기 위해 자체 인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사업 추진에 나서 주목된다.

시는 지역 인구가 200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 감소 현상이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자 인구회복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인구감소의 원인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자연적 요인과 청년인구 유출에 의한 사회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민선 8기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 지역소멸 위기 해법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시는 7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사업을 통해 20만명대(20만 9625명 2023년 11월 기준)로 무너진 인구를 회복키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인구를 최대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7대 추진과제는 아동과 여성이 행복한 도시 구현, 청년이 살고 싶은 청

년라이프 구현,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강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머무르고 싶은 도시 구현, 살고 싶은 도시 기반 인프라 확충,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이다.

특히 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산후조리, 가사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환경 등을 조성하고, 청년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임대주택 건립사업을 벌이고 광역교통망 확충과 천연물 바이오 국가·일반산업단지 조성, 육계항 개발 등 도시 기반 확충에 따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도시 경쟁력 약화, 지역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어 출산율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여건 개선으로 3년 내 인구가 1만명 이상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사회 05면

‘맥없는 동장군’ 포근한 날씨·때아닌 비 탓 겨울축제 비상

담 수위 상승 인제빙어축제 위기
“소양강댐과 수위 조절 협의” 고심
주말 영하권 눈 예보 현장 기대감

일년중 가장 많이 내린다는 ‘대설’을 지나고도 때아닌 겨울비가 강원도 전역에 내리면서 겨울 특수를 기대했던 지역 축제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겨울 축제장 얼음이 녹아 애를 먹었던 도내 겨울 축제장들이 올해는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이 커지고 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평창 송어축제 등 강원도내 겨울 낚시 축제장들의 얼음이 얼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까지는 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얼음이 만들어졌지만 최근 포근한 날씨와 비까지 내리자 모두 녹았다.

인파가 많이 찾는 강원도내 겨울 낚시 축제장이 안전하게 운영하려면 적어도 30cm는 돼야 하는데 날씨와 도와

주지 않자 축제 관계자들은 마땅히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평창 송어 축제위원회는 오는 22일에서 29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평창 송어 축제 관계자는 “현재 암울한 상황이다”라며 “주말부터 영하권으로 떨어져 날씨가 매우 춥다고하는데 꼭 그러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제빙어축제는 소양강댐의 수위가 걱정이다. 내년 1월 19일부터 열리는 인제빙어축제는 소양강댐 상류에서 진행돼 담 수위가 최소 183m는 돼야 육상에 축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비가 많이 오면서 담 수위가 187m까지 높아졌다. 당장 내년 1월이 되기 전에는 수위 조절을 마쳐야 축제 준비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인제빙어축제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가을과 겨울 들어 비가 많이 와서 수위도 높아졌다”라며 “소양강댐 측과 수위 조절을 위해 지속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이번 주말 영하권의 날씨와 많은

눈이 예정돼 있어 각 축제 현장들은 기대를 걸고 있다. 강원기상청은 북부산지를 중심으로 대설주의보를 발표, 15일까지 최대 50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도내 대부분 지역은 15일까지 강원도 전역에 시간당 10~20

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예상강수량은 강원 영서의 경우 최대 100mm, 영동 최대 120mm를 기록할 것으로 예보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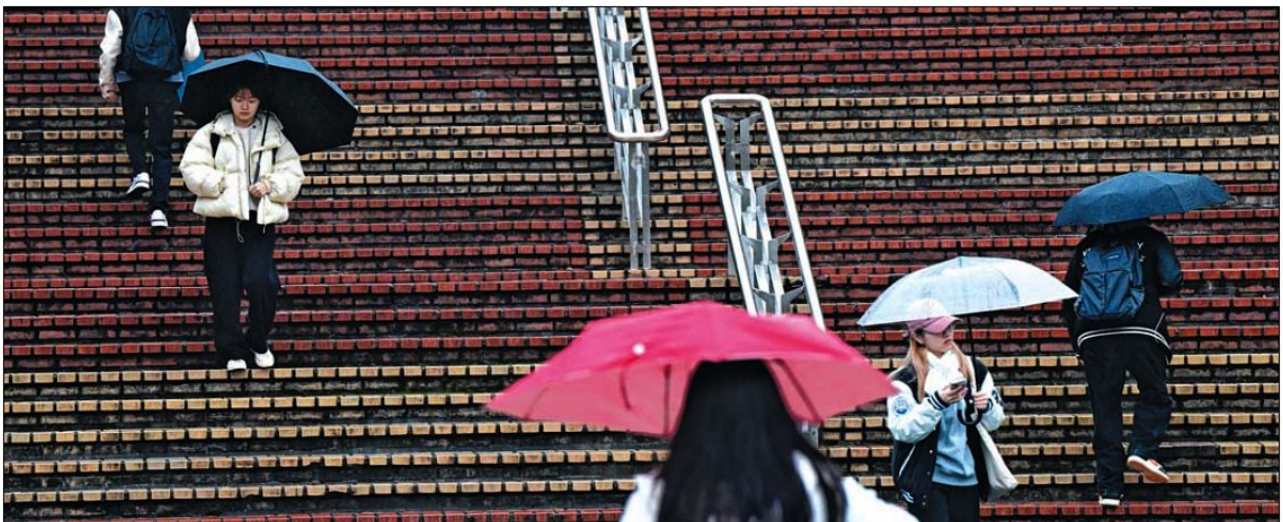
15일 아침 최저기온은 강원 영서 2~7도, 영동 3~7도며 낮 최고기온은 강원 영서 3~8도, 영동 1~5도로 예상된다.

비가 그치기 시작하는 16일부터 영하권의 날씨를 보이겠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강원 영서 -2~2도, 영동 1~5도며 낮 최고기온은 강원 영서 -2~2도, 영동 4~7도를 보여 영서를 중심으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신재훈·최우은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사회 05면



야속한 겨울비 겨울비가 내린 14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에서 학생들이 강의실로 향하고 있다.

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사설/칼럼 19면

국제 스케이트장 강원 유치 마땅

-춘천시·철원군도전, 철저준비선의 경쟁기대

춘천시와 철원군이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나섰다. 강원 영서 북부지역은 오래전부터 빙상 중심지로 명성을 이어왔습니다. 태릉 빙상장 건립 이전까지 각종 빙상 스포츠대회가 열려 선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국내 동계 스포츠는 평창을 중심으로 설상 종목이 큰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내 영서 북부지역이 국제 스케이트장을 유치해 빙상의 메카로 거듭나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홍보활동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기를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태릉선수촌 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400m 규격의 훈련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공모합니다. 사업에는 국비 2000억원이 투입됩니다. 공모는 태릉선수촌이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철거 절차를 밟으며 이뤄졌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내년 2월 8일까지 공모 서류를 받아 1차 도시를 선정합니다. 실사 후 2차 심사를 한 뒤 5월까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정상 준비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춘천시는 역사성과 접근성을 내세우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선언했습니다. 송암스포츠타운과의 시너지 효과를 앞세워 국제스케이트장을 유

치, 춘천 스포츠 100년 미래를 다진다는 포부입니다. 춘천시는 1962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 우두강 빙상대회, 1971년 제52회 전국체육대회 동계 빙상대회를 치렀고, 1991년 동계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 등 풍부한 경험에 있습니다.

철원군 역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희망합니다. 군은 스케이트장 부지의 군 유휴지 활용을 제시했습니다. 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국제스케이트장 철원 유치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철원은 대표적인 흑한기 지역이자 군 유휴지 활용이 가능해 동계 스포츠 도시로 성장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도시로 성장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와 철원군은 역사와 입지 여건, 당위성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빙상장이 조성되면 국내 경기는 물론 국제대회가 잇따라 열려 세계 속의 빙상 도시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도시의 위상 변화와 함께 지역 발전을 견인할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치에 나서는 지자체는 현장 관리와 서류 작업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더불어 유치 이후 지역 경기 부양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년 12월 15일 (금)

사설/칼럼 19면

접경지 주민 심리적 안정화 필요

-203개 단체 기자회견, 군사충돌 고조 생활 불안감 호소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 긴장이 높아지면서 접경지 주민들이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우려하며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강원, 경기 접경지에서는 흡사 전쟁이라도 난 듯한 강도 높은 군사훈련이 진행된 데다가 더 확대될 것을 걱정합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 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12월 13일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강원 및 경기지역을 비롯해 전국에서 203개 단체가 동조하며 참여해 한목소리로 전쟁 불안 해소를 촉구했습니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5개군 접경지에 주거 및 생업 터전을 둔 현지 주민들의 심리적 민감도는 휴전선이 멀리 떨어진 제주나 영·호남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민간인 출입통제선 안에서 농사를 짓느라 군인 초소 앞을 일상적으로 넘나들어야 하는 철원의 한 농업인은 북에 수시로 전단을 살포하느라 영농철에 농지에 들어가지 못해 밭을 동동 굴렀다고 하소연합니다. 생계와 직결돼 있기에 전쟁 불안 없이 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지인 방문과 관광산업에 기대고 있는 지역에서는 전쟁 불안이 고조되면 발길 자체가 뚝 끊기기 때문에 지역 경제 타격을 고스란히 받는다고 밝혔

습니다. 더욱이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에 각종 경제 지표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남북 관계마저 쑥쑥 얼어붙은 탓에 경제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은 기대가 어렵게 됐다며 우울해합니다.

접경지역은 군부대가 밀집해 있고 군인이 대거 주둔하며 군사무기가 집중 배치돼 고도로 군사화돼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강원인들은 총포 소리가 커질 때마다 심리적 타격을 절감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투가 보여주듯 전쟁 피해는 군인과 민간인 무차별적입니다. 첨단 기술이 적용된 무기는 피아를 가리지 않고 치명적이고 광범위한 파괴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끊어지면 군사적 충돌 위험성은 더 올라가게 마련이고, 실상 예방 조치도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긴장도를 높입니다. 특히 남북 군사분계선 완충지대는 매우 좁은 데다가 과거 국지적, 우발적 충돌 사례도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은 후방 국민들이 접하는 정서와는 사뭇 다릅니다. 당장 일상에서 부딪치는 접경지 주민들의 고충과 생업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 안정화를 꾀하는 조치가 강구돼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15일 (금)

사설/칼럼 25면

자영업자 5,200명 감소, 서민 경제부터 살려야 할 때

올 들어 줄곧 증가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 사정이 악화되자 휴·폐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의 '2023년 11월 강원 지역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자영업자는 20만2,100명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5,200명 감소한 것이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1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3,100명이 각각 줄었다. 최저임금 상승과 경기 악화 등으로 자영업이 더는 생계 수단이 되지 않자 휴·폐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가족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1,700명이 많아졌다. 매출이 줄자 인건비를 아끼면서 가족과 함께 가게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1만 1,000명), 15~29세 청년층(7,100명), 30대(5,600명)는 증가세를 보였지만 '경제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40대와 50대는 전년 대비 각각 5,600명, 1,400명 감소했다.

그렇지 않아도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 도내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5만5,000명에 육박한다. 이들의 대출잔액은 2021년 2분기 11조5,000억원에 그쳤으나 지난해 동기 14조7,000억원으로 28.6% 늘었고, 올해 15조4,000억원으로 더 늘어났다. 최근 2년간 증가율은 34.6%에 달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에 수익구조가 무너지면서 고금리까지 더해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자영업자들이 생계 유지 걱정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결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불투명한 경기 전망' 탓이다. 작은 점포나 공장의 폐업은 경영자와 가족의 파산을 뜻한다. 자칫 도내 자영업자의 무더기 파산 사태가 벌어지기 직전이다.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자영업은 지역 경제의 실타래이자 안전망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들이 번성해야 지역 경제도 활력이 돈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폐업은 지역 경제의 뇌관이다. 이 상태라면 자영업자도, 지역 경제도 붕괴될 수 있다. 이미 사업을 접고 싶어도 생계 유지나 더 큰 손해를 감내하기 어려워 빚을 끌어들여 파산을 면하고 있는 '한계 자영업자'도 급증하고 있는 도내다. 더는 자영업자 줄폐업으로 지역 경제가 건전성을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쉽지 않겠지만 자영업자를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자영업은 경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 중 하나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江原日報

2023년 12월 15일 (금)

사설/칼럼 25면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검토해볼 만하다

시·도교육감을 어떻게 뽑느냐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 사회의 숙제였다. 전국 시·도교육감을 민간 선출방식으로 바꾼 것은 1991년부터다. 처음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들이 호선(互選)으로 뽑았으나 금품수수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1997년 학교운영위원회로 선출 권한을 넘겼다. 그러자 이번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커졌다. 그동안 교육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경우 전문성을 이유로 진입장벽을 세워 교육계 출신끼리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다.

2006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자기 지역의 시·도교육감을 뽑게 된 그동안의 여정은 이랬다.

문제는 시·도교육감 직선의 폐단이 적지 않다는 데 있다. 교육감

후보자들은 국회의원 선거구 10~20개에 해당되는 넓은 지역을 누비지만 정작 상당수 유권자는 후보들의 얼굴조차 모른다. 당선자 실질득표율이 10~20%에 그치기도 했다. 또 시·도교육감 후보자는 당적이 없기 때문에 30억~40억원의 법정 선거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5% 득표를 못 한 사람은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 더 심각한 사안은 교육자치와 정치 중립의 명분 속에서 등장한 시·도교육감 직선제는 극심한 좌우 이념 대결 구도에 얼룩져 이념 색깔이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잦은 마찰로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간 이러한 폐단을 목도하면서 러닝메이트제 도입이 흘러나왔

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연구원, 강원일보가 지난 13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개최한 강원특별법 발전과제 정책토론회(일반행정-교육자치 연계 분야 교육감 선출제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즉,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포함된 ‘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시범도입’ 특례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왔다.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직선제 폐지가 우세하다. 현 제도를 어떻게든 개선해야 한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지난날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결코 서둘러 결정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교육 환경과 현실에 맞는 제도가 무엇인가를 궁리해 찾아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과거와 같은 정부 임명제부터 시·도지사 선

직선제는 색깔 다른 자치단체장과 잦은 마찰
주민들 무관심으로 후보자 누구인지도 몰라
우리의 교육 환경과 현실에 맞는 제도 찾아야

거 때 시·도교육감을 러닝메이트로 뽑자는 의견까지 다양하지만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인지 공론화에 미온적이다. 러닝메이트 제도는 시·도지사와 교육책임자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치단체들은 교육예산을 지원하면서도 교육정책에 자신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여기에서 교원단체들은 ‘교육 전문성’을 내세워 반대하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눈치만 살피고 있다. 제안마다 장단점은 있지만 최근 시·도교육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만큼 선출방식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절실하다.